**3.1운동 100년,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선언서**

우리는 수 천 년 역사 속에서 숱하게 아프고 슬퍼왔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내부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민주주의의 묵살 앞에서 많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짧은 생을 마감해야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시대에는 36년 동안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그 모진 아픔들을 고스란히 이겨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고, 민족을 위해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나 분들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 지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19년 3월의 만세운동, 그 울림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곳, 이 시간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도산께서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상해로 건너가시어 다양한 단체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로 독립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만행에 대해 진정 있는 사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과거를 잊지 말고 항상 되새기며 살아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이상 무시 받거나 홀대받지 않는, 눈물보다 웃음이 많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여기 우리는 함께 외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앞서 살아가는 선배로서 아픈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올바른 역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 잡고 아름다운 우리강산에 후손들이 대대손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후세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후배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며 살아가겠습니다.

후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평온한, 100년이 지난 오늘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고 행동합시다.

2019. 3. 23 노원효